

#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만들 것”

### 유성동 교육감 예비후보, '달빛체육관 100곳 지정' 공약 발표... 학교형 50곳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유성동 좋은 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달빛체육관 100곳 지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누구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6호 공약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유 후보는 최근 학생 비만을 증가와 청소년 운동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5년 학생건강조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 비만률(비만·과체중) 비율은 30.5%로 2017년 23.9%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청소년 권장 운동량 충족 비율에서도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일부 소규모 학교는 체육관이 없고, 과대·과밀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 규모가 작아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일과 이후 학교 체육시설 이용도 쉽지 않아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인 달빛체육관은 학교와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지역 아동·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달빛체육관은 △학교형 50곳 △폐교형 5곳 △학교복합시설형 20곳 △지역

형 25곳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학교형은 학교 체육관을 활용해 운영하고, 폐교형은 야구장이나 수영장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체육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형은 교육부 사업과 연계해 추가 선정하며, 지역형은 지자체와 대학, 사설 체육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달빛체육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력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협력·배려 등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준비를 비롯해 특새 운동 확산,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화,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건강증진학교 운영, 메타버스 기반 IT 체육교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 확대 등을 통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성동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신체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달빛체육관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동 후보는 선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기업 근무 경력과 14년간의 초등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경범훈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9일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주권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 미래를 여는 나의 권리

### 전북교육청-전북선관위 선거교육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선거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경범훈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9일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주권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 미래를 여는 나의 권리'를 비전으로 학생들이 선거의 의미와 원칙을 이해하고 자율과 책임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유권자와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을 위한 참정권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모의선거와 토론수업, 체험형 교육 등 참여형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선관위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참정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선거와 정치 참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선거는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라며 “참정권 교육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도시가스, 전북교육청에 보육시설 도서 1190권 기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도시가스(주)가 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한 도서 기증식을 열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시가스는 9일 전북교육청 본청 회의실에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동희 전북도시가스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 기업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보육시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시가스는 이날 아동·청소년 도서 1,190권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기증받은 도서를 도내 보육시설 4곳에 약 300권씩 나눠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도시가스는 9일 전북교육청 본청 회의실에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동희 전북도시가스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성평등 교육 비전 제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데서 시작된 이 날은 전 세계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결국 학교에서 시작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이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학교가 가정에서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활 지도나 진로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



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교사의 인식 변화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 연수를 정례화하고 교과 수업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을 확대해 학교 운영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참여를 통한 변화도 제시했다.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을 줄이고 주요 직책을 성별과 관계없이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평등 실천 분과’를 운영해 캠페인과 토론회를 주도하도록 하며 또

래 간 존중과 경청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학부모 대상 성인지 교육과 부모 참여형 워크숍을 확대해 가정에서도 평등한 역할 분담과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육 대응도 강조했다. 사이버 혐오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북 지역 여학생들이 인공지능(AD)과 코딩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위촉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링과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할 때 진정한 평등이 시작된다”며 “전북교육이 변화의 중심이 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평등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대 사범대, 중등교사 임용 역대 최다 합격자 배출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다인 220명(공립 184명, 사립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북지역 최우수 교원인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명 증가한 것으로, 합격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립학교 합격자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전체 합격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측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전공별 맞춤형 특강을 운영하고, 예비 교원의 현장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 컨설팅과 심층 모의면접 등 다각적인 실무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전공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수법과 교직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이 매년 중등 임용시험에서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우석대, 장애인 체육시설 개방사업 5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우석대학교는 '2026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장애인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 장애인에게 개방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2022년부터 체육학과 김현룡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24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VR·AR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을 비롯해 장애인 건강체력증진 체육교실(배구), 특수체육 특

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2022년부터 체육학과 김현룡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24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VR·AR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을 비롯해 장애인 건강체력증진 체육교실(배구), 특수체육 특

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스포츠 프로그램과 대학 스포츠단 엘리트 선수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통합형 체육활동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올해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며, 오는 12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중등 교원 수업 설계·평가 운영 역량 강화

#### 전북교육청, 실습형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 교원의 수업 설계와 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연수를 운영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전주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2026학년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설계 실습'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등 학교 연구부장과 평가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 설계와 평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당초 교과별 20명씩 총 2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으로 국어 47명, 영어 43명, 수학 48명, 사회 53명, 과학 49명 등 총 2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 교원들은 교과별 운영 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에 참여했으며,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평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막연했던 과정 중심 평가 설계가 실습을 통해 명확해졌고 다른 학교 사례를 공유받아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 “새 학기 평가 계획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맞춤형 실습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 ‘모두가 한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 장수교육지원청 프로젝트에 지역사회 단체 참여 잇따라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근 교육장이 추진 중인 ‘모두가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프로젝트에 지역사회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장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추 교육장이 2년째 매년 사비를 출연해 졸업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으로, 최근 지역사회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장수군건설기계협회 리영호 회장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신병호 장수교육지원청버너스위원장도 장수 사람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장수 관내 한 초등학교 교장도 제자 사랑의 뜻으로 사비를 출연하며 사업 취지에 동참했다.

여기에 A모 유한회사도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처럼 지역사회 인사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장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



지고 있다.

추영근 장수교육장은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인해 자긍심이 높아지고 공부공존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쓰는 것은 예술이다. 장학금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사랑이며 봉사”라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나눔이 장수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교관호 기자